

## '백인중심' 아카데미상에 부는 변화의 바람

중국계 감독 '노매드랜드' 3관왕  
84세 앤서니 홉킨스 최고령 수상  
비영어권 다양한 작품 적극 수용



제93회 아카데미 감독상·작품상·여우조연상 등 3관왕을 차지한 '노매드랜드'의 주역 피터 스피어스 프로듀서·주연 프랜시스 맥도먼드·클로이 자오 감독·올리비아 콜맨 여배우와 맨 오브 스틸(원작부터)가 26일(한국시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LA(미국) | AP·뉴스시스

이번은 없었다. 변화도 계속된다. 26일(한국시간) 평평을 연 제93회 미국 아카데미상을 요약하면 이렇다. 수상자(작)에 대한 많은 예측과 전망은 결과로 확인됐다. 수년 전부터 인종과 언어 등 미국 중심의 보수적 운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영화가 지닌 더욱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려는 변화의 흐름도 이어졌고, 또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 ● '노매드랜드' 작품상 등 3관왕

이날 작품상은 많은 언론과 평단의 관측처럼 '노매드랜드'가 차지했다. 중국계 연출자 클로이 자오 감독은 아시아계 최초의 여성감독으로 감독상을 받았다. 주연 프랜시스 맥도먼드는 '파고'와 '쓰리 빌보드'에 이어 세 번째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2008년 미국 금융 위기 이후 터전을 잃고 길 위의 삶을 택한 이들의 아픔과 연대를 그린 '노매드랜드'의 다관왕은 이미 예견됐다. 프란시스 맥도먼드의 적극적 제안에 클로이 자오 감독이 동명의 논픽션을 이야기로 재구성, '현대판 유목민'의 가파른 삶을 그려내며 유려한 작품상 등 강력한 수상 후보자로 거론돼 왔다.

아카데미 측은 '노매드랜드'를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 외부인의 경험을 녹여

낸 영화"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 언급은 '미나리'의 메시지와 맞닿게 하는 듯했고, 74세의 유년정처럼 84세의 역대 최고령 수상자가 된 앤서니 홉킨스도 노년의 힘을 과시했다. 치매 노인의 시선으로 현실을 담아낸 '더 파더'로 남우조연상을 거머쥐었다. 재즈뮤지션을 꿈꾸는 기간제 교사의 희망을 그린 애니메이션 '소울'의 음악상,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블록버스터 '데넷'의 시각효과상 등도 이미 예측된 성과이기도 했다.

### ●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품다

남우조연상은 1968년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의 이야기를 그린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의 흑인배우 대니얼 칼루야가

받았다. 이로써 남녀주·조연상 등 4개 연기자상 부문에서 유년정을 포함해 두 개의 트로피를 유색인종 배우가 차지했다. 역시 흑인배우인 '마 레이나, 그녀가 블루스'의 고 채드wick 보스만과 비올라 데이비스도 당초 유력한 남녀주연상 수상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다.

이는 중국계 클로이 자오 감독의 감독상 등을 포함해 올해 아카데미상 역시 수년 전부터 시도해온 변화의 한 흐름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측은 짧은 시간 '할리우드의 보수적 백인 남성 중심'으로 상을 운영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기생충'의 작품상 등 4관왕을 전후해 수년 동안 흑인·아시아를 비롯한 비영어

### 제93회 아카데미상 각 부문별 수상자(작)

작품상	▶ 노매드랜드
감독상	▶ 클로이 자오(노매드랜드)
남우조연상	▶ 앤서니 홉킨스(더 파더)
여우조연상	▶ 프랜시스 맥도먼드(노매드랜드)
남우조연상	▶ 대니얼 칼루야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여우조연상	▶ 율여정(미나리)
각본상	▶ 프라미싱 영 우먼
각색상	▶ 더 파더
국제장편영화상	▶ 언더 러운드(덴마크)
촬영상	▶ 맥크
편집상	▶ 사운드 오브 메탈
주제가상	▶ 파이트 포 유 (Fight For You,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미술상	▶ 맥크
분장상	▶ 마 레이나, 그녀가 블루스
의상상	▶ 마 레이나, 그녀가 블루스
음향상	▶ 사운드 오브 메탈
단편영화상	▶ 투 디스턴트 스트레인저스
장편애니메이션상	▶ 소울
단편애니메이션상	▶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해
장편다큐멘터리상	▶ 나의 문어 선생님
단편다큐멘터리상	▶ 콜레트

권·여성 등에 대한 시상을 아까지 않으면서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 남동철 부산국제영화제 수석프로그램 매니저는 "오스카가 다양성에 열린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연예뉴스 HOT 3

#### 백현, 5월1일 'B-데이:백현-데이' 라이브 방송



백현

생일인 5월6일 입대하는 그룹 엑소의 백현이 스페셜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을 만난다. 2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백현이 5월1일 오후 3시부터 네이버 브이라이브 엑소 채널을 통해 'B-데이:백현-데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입대일에 생일을 맞는 백현이 팬들과 미리 파티를 여는 콘셉트이다. 음악에 관한 토크와 다채로운 게임도 준비한다. 백현은 최근 솔로 미니 3집 '밤비'를 선보여 20일 만에 100만장 판매고를 돌파했다.

#### 유재석, 청년들을 위한 밥집에 5000만원 기부



유재석

개그맨 유재석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약속한 대로 청년들을 위한 밥집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26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청년공간' 측은 "유재석이 최근 5000만원을 기탁해왔다"고 밝혔다. 유재석은 21일 방송에 출연한 이문수 신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맞다. 후원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신부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편히 식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끼에 3000원을 받는 밥집을 운영하고 있다.

#### 변정수 코로나19 양성... "업무차 미팅서 감염"



변정수

모델 출신 연기자 변정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6일 변정수는 SNS를 통해 "업무차 미팅으로 같이 식사한 파트너 회사 담당자가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검사를 진행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시작했고,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있던 스태프 및 접촉자들에 즉시 연락을 취해 신속히 검사했다"고 덧붙였다.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 에릭 오 감독 '오페라', 수상은 놓쳤지만...

(오수형)

(단편애니메이션상)

설치 미디어 아트 작품, 전세계 찬사  
픽사 '도리를 찾아서' 제작 참여 경력

나의 성과였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보고 자라나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서 자신의 작품으로 한국 최초로 단편애니메이션상을 노렸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뒤 미국으로 날아가 할리우드 스튜디오 픽사에서 일하며 세계적인 흥행작 '도리를 찾아서'의 문어 핵 커리터 등으로 재능을 과시한 뒤였다. 2015년 '뎀 키퍼'의 제작팀과 함께 아카데미상 단편애니메이션 후보에 오른 데 이은 또 하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 선 한국 출신 에릭 오(오수형·37) 감독. 그는 26일(한국시간) 열린 시상식에서 '오페라'로 단편애니메이션상을 기대했다. 하지만 오스카 트로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해'(If Anything Happens I Love You)에게 돌아갔다.

수상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았지만, 후보 지명만으로도 '오페라'는 이미 작품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오페라'는 벽면이나 구조물에 투사되는 설치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다양한 문화적·계층적 갈등을 다뤘다. 최근 미국에서 급속해지는 아시아



단편애니메이션상 후보 '오페라' 에릭 오 감독

중요 범죄와 인종차별의 현실과도 무관치 않은 작품으로 더욱 눈길을 모은다.

한국의 비스츠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오페라'는 지난해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애니메이션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비롯해 다양한 애니메이션 축제에서 공식

상영대 호평 받았다. 또 3월 말 열린 북미 최대 콘텐츠 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에서 관객상을 수상했다. 뉴욕 타임스, 버라이어티, 워싱턴 포스트, 할리우드 리포터 등 유수의 언론매체가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평가를 받아안은 에릭 오 감독은 서울대 미대(서양화)를 나와 아버지인 오준호 카이스트 교수를 따라 미국으로 날아가 UCLA에서 공부했다. 2010년부터 6년여 동안 픽사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뎀 키퍼'로 세계 최고 권위의 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TV시리즈 부문 최고상인 크리스탈을 거머쥐었다.

한편 '오페라'는 올해 안에 한국에서 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간편한 헤어칼라

# 순한결

1제, 2제가 하나로  
1회 염색 한 달까지

(즉석 샴푸식 염색) **사은품과 2개월 무료 체험분을 드립니다.**

본품 15Box 45회분

사은품 3Box 9회분

2개월 무료체험 3회분

**총 18Box 57회분**  
(본품 15box+사은품3box+무료체험분 3회분)

80%이상 자연유래 성분  
1제, 2제가 하나로~

3분 만에 즉석염색,  
샴푸와 트리트먼트가 한번에~

중년이 넘어서 자신의 헤어스타일은 머리칼과, 머리 염색으로 3~4분을 불편하게 낭비해야 하는 시대는 옛날이다. 손에 찌서 머리에 비벼주고 3분 뒤 머리감으면 깔끔하게 염색이 되는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간편한헤어칼라 순한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1제 2제가 하나로 된 샴푸식으로 3분 만에 즉석 염색이 되며 특히 한 번 염색으로 한 달까지 색상을 유지해 준다. 검은콩, 아몬드, 뽕나무뿌리, 고추등 18가지 80%이상 자연유래 성분이 두피와 모발의 자극을 최소화시켜 윤기 나는 깨끗한 컬러로 연출해 주며 미세한 거품으로 흘러내리지 않아 혼자서도 쉽게 염색을 할 수 있다.

색상은 3가지로 점검색, 진한갈색, 자연갈색으로 사용자의 모발에 맞게 선택하여 더욱 멋진 염색을 연출해준다. 샴푸한 듯 은은한 향기와 빠른 염색시간 덕분에 출근 전에 즉석 염색, 대중사우나에서도 남을 의심하지 않고 걱정 없이 염색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간편한 헤어칼라 순한결"은 본 품이 15박스, 추가 사은품 3박스, 무료체험분 1박스(3회분), 총 18박스를 59,800원에 품평 드리는 할인행사다. 또한 고객에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 2개월 동안 사용 후 불만족 시 무료체험분을 제외한 18박스는 무조건 구입한 가격으로 100% 전액을 환불해주며 반품 시 택배비용만 소비자 부담된다.

## 머리만 감아도 염색이 절로~ (3분염색)

빠르고 쉬워요~

- 피우지를 걸머로 잡고 뒷부분을 빗겨 가위로 잘라준다.
- 컬러서 특-파우더 1제, 2제가 동시에 나온다.
- 컬러서 후 머리에 미끈 거품이 나오도록 골고루 바른다.
- 3~5분 뒤 미온수로 헹구면 염색 끝!

※ 머리에 비벼주면 즉시 검게 변하기 때문에 1회용 주방 비닐장갑을 착용하세요. 머리를 감을 때 피부는 잘 지워지지 않는 손톱에 묻은 염색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옷, 알리지, 피부트러블, 눈 따가움 걱정 끝!  
**옷이 전혀 타지 않는 염모제**  
**감아조아 칼라 염모제**

1제, 2제를 각각 10분씩 발라 염색하는  
올타지 않는 10분염색 '감아조아'

알타지 않는 염모제 1회 사용 후 2개월을 무료로 체험합니다.

판매가격 : 69,800원  
\*신용카드 3개월 무이자, 일부 카드제외

※ 제품은 샴푸방식이 아닙니다.  
염색방 프랜차이즈 모집

■ 제조원: 로위더스(주)

■ 제조원: ㈜새콤코스메틱

■ 판매원: 대양라이프

**총 18Box(57회분) 할인판매 59,800원** (카드 3개월 무이자, 일부 카드제외)

주문전화: 1544-0563 www.대양라이프.kr